



성공 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서산상공회의소

7

2024. MAY

제76호

[제76호] 2024년 7월

발행처 서산상공회의소 | 발행인 유상만 | 편집인 가재무

서산상공회의소 나라장터 전자입찰 실무교육 개최

• 나라장터 개요 및 입찰용어 정의 등 •

서산상공회의소(회장 유상만)는 지난 6월 19일 서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나라장터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개최 하였다.

이날 교육에는 입찰분석 전문기업 인포스의 육태균 강사를 초빙하여 나라장터의 개요 및 전자입찰 용어 등을 설명하며 강의를 진행하였다. 서산 관내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입찰의 정석”이라는 강의 주제로 진행이 되어 정부조달 및 규모, 나라장터



업종구분, 조달업체 등록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상기 시키며 교육을 진행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서산상공회의

소 교육에 참가한 기업관계자들은 “전자입찰에 관한 교육을 듣기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번 교육은 지역에서 교육

을 진행하고 기업 담당자들은 타 지역으로의 이동없이 편하게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감사를 전했다.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 소공인 IP(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



| 소공인 상표 출원 지원

| IP역량 강화를 통한 소공인 경영 고도화 지원

소상공인 상표사업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https://pms.ipc.org/smallbiz>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가 광천소공인특화센터와 함께 소공인 IP(지식재산)역량 강화 지원에 박차를 하고 있다.

센터는 토굴새우젓, 조미김 등 광천의 식품 제조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재권, 브랜드, 사업고도화 방안에 대한 3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상담을 통해 영업표지와 상품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지원하였다.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의 상표 출원지원 사업은 소공인은 물론 소상인을 포함한 소상공인 전체가 지원대상이며, 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부담금이 면제된다.





디자인맵을 지원해주는 IP바로지원 사업

서산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는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은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바로 지원하여 해결한다.'라는 특허청의 지원 의지를 담고 있다.

기업마다 애로사항이 다르므로, IP바로지원 사업은 특히, 브랜드, 디자인 등의 10개 세부 사업으로 세분되어 기업이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오늘 알아볼 '디자인맵'은 기업이 디자인을 제작하기 전에 미리 검색을 통해 맵을 작성하여 디자인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디자인에 대한 체계 확립 및 연구 활용도 제고 등 디자인 경영전략의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협난한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자신의 디자인이 타인의 선행디자인과 저촉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 심판과 소송 등에 소요될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아래는 실제 심판을 통해 개발된 자신의 디자인이 타인의 선행디자인에 의해 무효화 된 사건으로 철저한 디자인 검색 등 개발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아 개발된 자신의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례이다.

개발디자인(등록무효)	G사의 선행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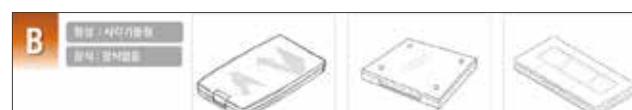
심결요약 : 개발 디자인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해외 유명 브랜드 G사의 핸드백 외피 원단 패턴을 이용해서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으므로 등록을 무효로 함

디자인맵 지원사업 프로세스



▶ 국내·외 시장 조사 및 분석

- 시장, 소비, 내부, 디자인DB, 특허기술DB 조사 및 분석 제공



▶ 디자인맵 전략 수립

- 디자인맵 활용성 진단(법률, 경쟁력 등), 디자인 Identity 전략 개발 수립
- 디자인맵 컨셉 연구, 아이디어 스케치, 디자인 가이드 제시



▶ 디자인 권리화 전략 방향 제시

- 선행디자인 검색을 통한 디자인 권리화 지원 전략 수립
위와 같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는 수혜기업, 전문 협력업체와 함께 디자인의 형태, 용도, 기업의 가치관, 니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혜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전략과 디자인 권리화를 지원하고 있다.



유연근무 장려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으로 유연근무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유연근무 제를 도입하여, 워라밸의 확보 측면에서 직원 만족도 향상과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업무집중도의 향상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이 그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유연근무 장려

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다음 칼럼부터 지원대상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다.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대상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이며, 지원요건은, i) 주당소정근로 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ii)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iii)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관리이며, 시차출퇴근의 경우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그

리고 선택근무제의 경우는 i)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ii)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iii)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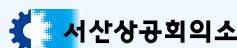
지원내용으로는,

▲재택-원격근무의 경우는 1년간 최대 360만원이 지급되고, ▲시차출퇴근의 경우 1년간 최대 240만원이 지급되며, ▲선택근무의 경우 1년간 최대 360만원이 지원되니, 정부 지원 컨설팅을 활용한다면, 부담없이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7월 창립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업체명	창립기념일	업체명	창립기념일
현대오일뱅크(주)	7월 1일	효창산업	7월 12일
어프로티움(주)	7월 1일	(주)서광	7월 24일
피티에스(주)	7월 1일	(주)새론건설	7월 25일
(주)봉황	7월 1일	세무법인 참솔	7월 25일
자연은	7월 1일	(주)신동양건설	7월 26일
에스엔종합건설(주)	7월 10일	(주)에쓰엔	7월 28일
태안현대서비스	7월 10일		

* 창립일이 다른 경우 상공회의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산상공회의소 회원지원팀 ☎041-663-3063



주소_충남 서산시 읍내3로 28
전화_663-3063 / 팩스_663-3065
홈페이지_sscci.korchar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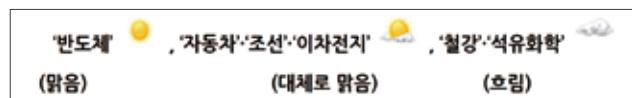
“
지역은 기업 사랑
기업은 지역 사랑
”

상공회의소 소식지로 회원기업과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홍보를 필요로 하시는 회원기업은 상공회의소에 알려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소식

2024년 하반기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

대한상의,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하반기 산업기상도' 공동조사



올해 하반기 반도체산업은 '맑음', 자동차·조선·이차전지·바이오·기계·디스플레이·섬유·철강·석유화학·건설 분야는 '흐림'으로 예보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11개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2024년 하반기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를 실시해 24일 발표한 결과다.



하반기 긍·부정 요인을 종합해 기상도로 표현 < 맑음(매우 좋음) 대체로 맑음(좋음) 흐림(어려움) 비(매우 어려움) >

[반도체] 반도체산업은 AI PC, 신규 스마트폰 출시 등 IT 전방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와 메모리(DRAM, NAND)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주요 업종 중 유일하게 '맑음'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7% 성장한 652억 달러, 2024년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9.8% 성장한 1,280억 달러 안팎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종완 한국반도체협회 전략기획실장은 "작년에 축소됐던 반도체 생산량이 AI 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 크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심리 역시 점차 회복돼 올해 글로벌 반도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51억 달러로 전망되며, 한국도 용인·평택 등 반도체클러스터

를 중심으로 향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동차·조선·이차전지·바이오·기계·디스플레이·섬유·패션]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바이오, 기계, 디스플레이, 섬유·패션산업은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수출 상승세에 힘입어 '대체로 맑음'으로 예보됐다. 자동차업종은 하반기 금리인하로 인한 유럽시장 수요의 정상화, 북미시장에서의 견조한 성장세, 친환경 신차 수출(EV3, 캐스퍼EV, 카니발 HEV 등) 등이 호재로 작용해 하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4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내수는 높은 가계부채와 할부금리 등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

한 84만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은 수출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208만대로 예측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이 올해말 일몰 예정이라 전기차 판매 부진 상황이 더 심화될까 우려된다"며 "세액 감면 일몰기한 연장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조선업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에너지전환 추세에 따른 추가발주 기대감을 가장 큰 호재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선박 수출액은 129.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차전지는 지난 상반기 전기차 OEM들의 재고조정, 생산계획 연기 등이 배터리 기업의 생산축소로 이어지며 난항을 겪은 반면, 올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신차출시 및 미국의 對中 전기차·배터리 관세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등에 힘입어 배터리 출하량이 상반기 대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은 "1월 최저치를 기록했던 광물가격이 회복세로 돌아

서며 하반기부터 배터리 및 소재 가격에 반영돼 수출 실적도 전반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약&539;바이오산업은 미중갈등 심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일부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지난 5월 하원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우수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지닌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의 새로운 파트너사로 거론되며 한&539;미 간 신규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의약품 시장이 하반기에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방리스크로는 원부자재가격 상승을 꼽았다.

디스플레이산업은 하반기 AI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과 IT기기 출시 확대 영향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투 스택 텐덤(Two Stack Tandem), LTPO 등 고부가 가치 기술이 적용된 태블릿·노트북 제품 출시가 확대되면서 하반기 수출 및 생산 확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섬유·패션산업은 국내외

금리인하 기조에 따른 소비재 수요 증가로 對아세안 소재 수출 및 한류지역 등으로의 의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석유화학·건설] 철강업종은 '흐림'으로 예보됐다.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호조세인 조선, 자동차 등 산업은 저가 중국제품 수입이 지속되며 상반기보다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하반기 미국의 對중국 철강 고관세 부과 시행, 미국 대선 등이 예정돼 있어 더 많은 중국산 저가 제품이 한국에 유

입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업종 역시 중국의 대규모 소비촉진 정책 시행에 따라 수요회복은 기대되지만,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해 극적인 업황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석유화학산업은 수출비중이 55%에 달하는 대표적 수출 산업으로 글로벌 경기와 전방산업 수요에 민감한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주요국들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반기에도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산업도 상황이 녹록

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24.4월 누계기준 49.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다. 발주자별로 보면 민간부문의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20.7%로 크게 감소하면서 건설시장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금리 및 PF구조조정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민간건설 수주 난항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하반기 수주실적은 87.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가량 감소할 것(민간

은 13.5% 감소)으로 전망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하반기 금리인하 및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요산업 전반에 수출회복 흐름이 예상되긴 하나, 자국산업 우선주의 확대와 중국의 공급역량 강화 및 밀어내기 수출 등으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의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전략 노력과 더불어 민간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해소, 세제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건의

■ 대한상의, 경제활력 제고 위해 입법 없이 시행 가능한 정책과제 건의

[표] 대한상의 정책 건의 부문별 대표과제

부문 (과제 수)	대표 과제
I. 미래성장 기반조성 (11)	• 국가미래투자위원회 신설 • K-테마섹 설립 • Reverse-BTL 도입 등
II. 기후위기 대응 (9)	• 전기차 충전기 인증 개선 • 양극재 - 음극재 재조기압에 대한 통합환경허가제 적용 유예 등
III. 차본시장 활성화 (16)	•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 등
IV. 규제 합리화 (25)	•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 • 부산항터미널 컨테이너 반입제한 완화 등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4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차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내 투자거버넌스 구축,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지원 거버넌스를 보강해야 한다"면서 "투자거버넌스로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기업투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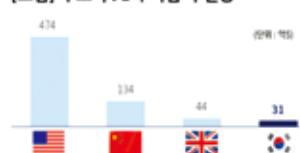
관련된 규제개선,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산업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 투자를 위해 한국형 테마섹의 설립을 요청했다. 한국형 테마섹이란 단기간 개발이 어려운 고위험·고성장 미래전략기술 확보, 첨단산업 관련 생산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국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내자본으로서 투자하는 국가 투자지주회사를 말한다.

[기후대응]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도 주문했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인허가, 절차 기준 등이 복잡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 계량과 무관한 항목의 경우에도 재승인을 취득해야 하고, 재승인을 위해 시험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인증기관 부족으로 인증서 발급이 지연(신청부터 발급까지 최소 3개월)되거나 약 2,20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인증 비용이 발생하는 등 재승인 절차상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상의는 "단순 이미지 변경, 통신 모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승인을 면제하고, 인증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본시장] 정부가 Value-

[그림] 주요국 AI 투자금액 현황



up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만 기업 현장에서는 Value-up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 해서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 범상 금융업 범위 확대'과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꼽 았다. 현행 법령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와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회사'만 소유가능한데, 플랫폼·ICT기업이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있는 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여 M&A 등 투자에 나서 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타 규제개선 합리화] 박 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은 "산업대전환의 시기에 기업이 대응해 나갈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기업투자와 경제활력을 높 이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방법이 효과적 일 때도 있다"고 밝혔다.

농협서산시지부, 한마음 농촌일손 지원의 날

| 지곡농협·한국농어촌공사와 양파·마늘 수확 일손돕기

농협서산시지부(지부장 송연광)는 14일 지곡농협·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와 협동 '한마음 농촌일손 지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지곡면 양파·마늘 농가에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송연광 농협서산시지부장, 유우식 지곡농협조합장을 비롯한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직원 등 25명이 참여해 구슬



땀을 흘리며 양파 및 마늘 수확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이날 행사는 평소에도 지역 내 일손돕기를 자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농협의 농촌일손돕기 제안에 한국농

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가 선뜻 응하며 이루어졌다. 송연광 지부장은 "일손돕기에 함께 해 주신 농협 및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관내 농촌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기업, 단체에서 범국민적인 일손돕기에도 적극 참여해 주신다면 농촌 인력부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범국민적 농촌일손돕기 참여 봄을 조성하고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마음 농촌일손 지원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영농철 농가 인력지원에 범농협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대산 4개 공익단체 지원금 전달

HD현대오일뱅크(대표이사 주영민)는 11일 대산지역 주요 단체에 공익활동지원금 총 36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원 단체는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 방역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인명구조대, 청년회의소 등 4개 단체다.

지원금은 각 단체들의



노후화 장비 교체와 활동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HD현

대오일뱅크는 지난 2000년 대 초부터 약 20여년 가까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공익단체들을 지원해 왔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공익단체 관계자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화토탈에너지스, 우럭·광어 치어 25만 마리 방류

■ 삼길포 인근서 바다 가꾸기 사업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어족자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삼길포 앞바다에 치어 25만 마리와 바지락 종래를 방류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12일 대산읍 삼길포 해안에서 지역주민, 지역사회 관계자와 회사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한화토탈에너지스와 함께 하는 바다 가꾸기 사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바다 가꾸기 사업은 인근 지역의 어족 자원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지역 사



회공헌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우럭, 광어 치어 25만 마리 방류를 지원하고 올해는 지역 어촌계의 의견을 반영해 바지락 종래사업 대상지역을 우도 어촌계 까지 확대했다.

김광희 화곡어촌계장은

“매년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지원하는 치어 방류를 통

해 대산 인근 바다의 어족 자원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 관계자는 “지난해 엘니뇨에 이

어 올해에는 라니냐 현상이 예상되는 등 이상기온에 따른 어족자원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화토탈에너지스의 바다 가꾸기 사업이 대산 앞바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치어 방류 외에도 임직원들이 인근 해안의 환경 정화를 위한 자원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삼길포에서 개최되는 우럭축제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LG화학 대산공장, 도민체육대회 후원금 2천만 원 전달

서산시는 지난 4일 LG화학 대산공장이 ‘2024년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2천만 원을 서산시체육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과 윤만형 서산시체육회장, LG화학 대산공장 박래덕 공장장, 문신철 업무지원팀장, 이훈노 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서산시체육회는 이날 기탁된 후원금을 ‘2024 제76



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운영과 참가선수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윤만형 서산시체육회장은 “서산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민체육

대회를 위한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응원에 힘입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역사회 공헌에 관심을 갖고 후원해준 LG화학 대산공장에 감사드린다”며 “해뜨는 서산에서 도민이 하나되는 화합체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는 1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 폐회식까지 4일간 서산종합운동장 등 33개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충남 15개 시군, 30개 종목, 1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한다.



내일채움공제



개요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율을 더하여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최소 2,040만원 목돈이 핵심인력에게!)

지원조건

- (가입기간) 5년
- (부금납입)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34만원 이상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2 이상] 비율로 납입
- (수령금액) 5년 2,040만원 이상 (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

가입혜택

- (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 우수인력 유입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
(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인력)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3배이상 수령
만기 수령 시 기업 납입분에 대해 근로소득세 50% 감면

지원대상

-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중견기업(주점업 등 제외)
- (인력) 5년 이상 장기 재직이 가능한 근로자

가입방법



온라인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청약 신청



방문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3개 지역본(지)부

문의처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전화) 1588-6259
- (서산상공회의소) 041) 663-3063
-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내일채움공제